

아라비아반도
NEWSLETTER

아라비아는 지금, 사막에서 우주로

지난 3월 2일 UAE 우주 비행사 술탄 알 네야디(Sultan Al Neyadi)가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떠났다. 그는 6개월 동안 우주에 머무르면서 라마단과 이드 명절을 우주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라마단에는 금식해야 하지만 그는 여행자이기에 금식의 의무가 아니며, 맡겨진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는 석유 부국들

아직도 아라비아반도를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곳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탈석유를 위한 이들의 노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우주개발이다. UAE는 2014년 UAE우주청을 설립하여 우주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21년 2월 화성 탐사선 '아말'의 화성 궤도 안착을 성공시켰고, 2022년 12월 탐사 로버 '라시드'를 탑재한 일본의 민간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사 착륙선이 발사되었다.

2028년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 탐사 등 관측 수행을 계획 중이며, 궁극적으로 2117년 화성 거주를 목표로 달 및 화성 탐사 우주 산업 투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라비아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UAE에 자극을 받은 사우디는 2018년 사우디 우주위원회(SSC)를 설립해 국가 주도 우주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산업 다변화 정책인 '비전 2030' 중 하나로 우주인 배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4명의 사우디 국적 우주 비행사들이 액시엄 스페이스의 첫 번째 유인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AX-1'에 참여해 17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렀다. 또한, 사우디 여성 우주 비행사 라야나 바르나위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유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하나로 보수적인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오만은 UAE나 사우디처럼 거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오만 두쿰(Duqm) 지역에 우주 분야와 인공 지능 및 첨단 기술 실험을 할 수 있는 우주 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주 비행사들이 실제 비행에 참여하기 전에 우주 비행을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슬림 우주 생활 지침

아랍계 무슬림 출신의 최초 우주인은 1985년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술탄 빈 살만이다. 그는 당시 "우주에 머무는 동안 기도와 금식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기 어려웠고 무중력 탓에 제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무슬림이 우주로 나가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서, 2007년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이 우주에서 종교적 규범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슬림의 우주 생활 지침서'를 발간했다. 말레이시아 우주항공국(MNSA)은 말레이시아 출신 첫 우주인 셰이크 무자파르 수코르의 우주 생활을 위해 '우주에서의 이슬람과 생활'이라는 지침서를 발간했는데, 우주에서 기도를 앞둔 세정식과 이슬람 성지인 메카 방향을 정하는 법, 금식, 기도드리는 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메카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방향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 무중력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주에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구에서 무슬림들은 반드시 얼굴, 손, 발 등을 물로 씻고 난 뒤 예배를 볼 수 있지만, 물이 귀한 우주에서는 씻을 필요가 없다.

우주개발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들

꾸란은 알라가 태양, 달, 행성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주로 나간 무슬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진 우주의 광경 속에서 그들이 믿는 알라를 찬양할까? 아라비아반도 국가들은 1970년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화려한 마천루를 세우고,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우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들은 여전히 오랜 종교적 전통과 관습 속에서 살고 있다. 세계화를 넘어 우주 시대의 개방된 환경 속에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타문화에도 그들의 사고가 열리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도록 기도할 시간이다.

- 무슬림 우주인들이 광활한 우주에서 생활하면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 최첨단 과학 기술과 오랜 종교적 전통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종교적 악습이 폐지되고, 폐쇄적인 종교체제가 개방되도록 기도하자.
- 우주개발 시대에 사는 젊은 세대들이 열린 사고를 하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자.

[참고자료] KOTRA 자료 2023-01-03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9765
 Omanobserver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25141/oman/governorates/duqm-to-get-space-settlement-centre>
 동아일보 2023-02-14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214/117872249/1>
 세계일보 2007-10-11
<https://www.segye.com/newsView/20071011003033>